



◇동국대 대각전.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은 수미산 입구를 상징하는 일주문으로, 법당에 올라서면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한다.

사찰은 속세에 차려진 정토(淨土)다. 대웅전이나 극락전이 화려하고 장엄한 것도 지상에 베풀어진 극락정토이기 때문이다. 예토에서 만나는 정토 사찰은 중생의 몸으로 부처를 꿈꾸는 공간이다.

‘젊은 사람이 짓지만 그 젊은 사람의 정신을 만든다.’ 젊은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든다고 해서 모

절짓기 溫故知新

담양 정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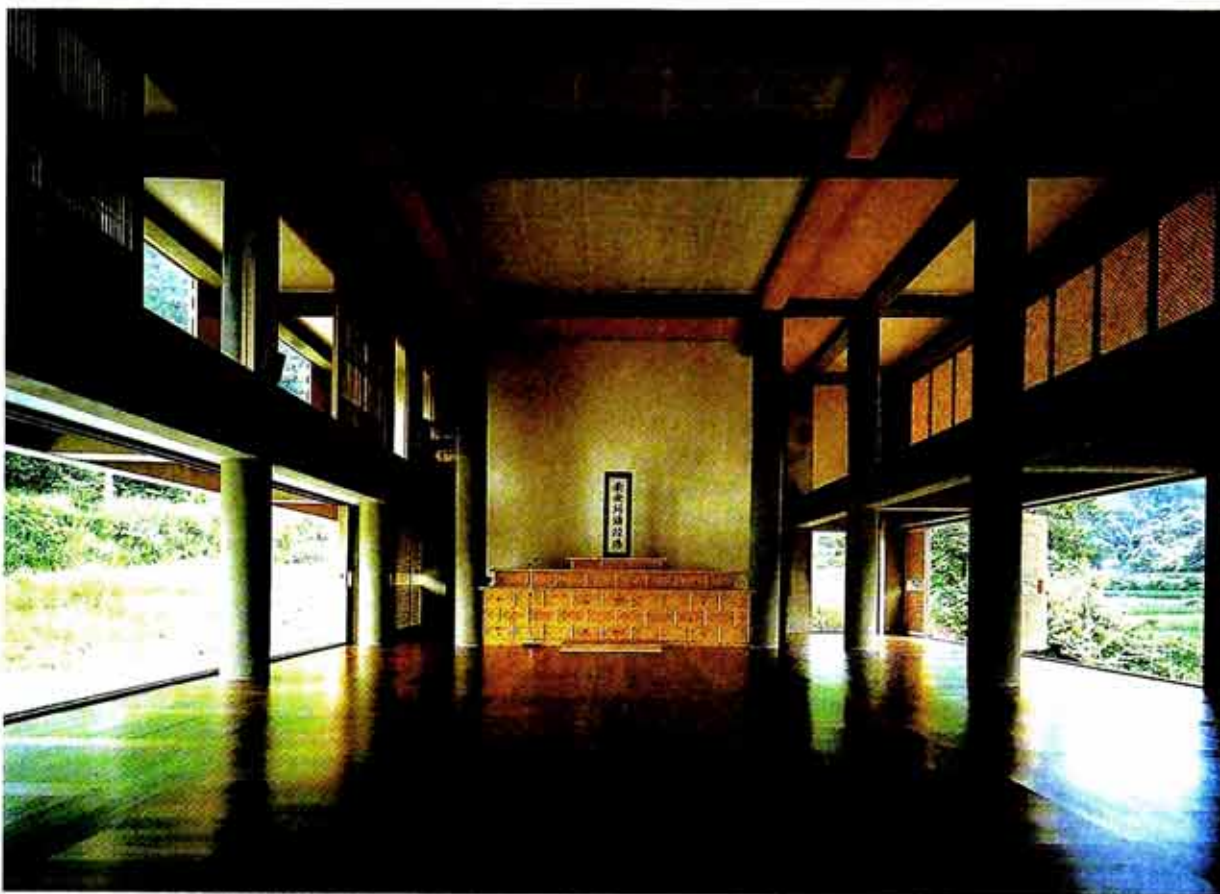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고양 문사수범회 법당

동국대 대각전

기와·목재 기둥 없다

그러나 禪의 공간이다



◇오른 벽이 창과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담양 정토사법당. 문을 열면 인위와 자연의 구분은 없어지고 법당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

현대사찰 건축의 美學 ‘자연과 인간 합일’

두 건축은 아니다. 사찰이나 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당은 저 혼자 설법을 하고 절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인지를 자연이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극한 공간. 여기에는 오직 선(禪)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연과의 합일, 인간과의 합일을 꿈꾸는 공간.

대학 캠퍼스같은 외양

담양 정토사,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고양 문사수범회 법당, 동국대 대각전. 이들 사찰과 법당은 불교 전통건축양식의 반란자(反亂者)다. 그 흔한 기와도 아름다워 목재 기둥도 없다. 법당인지 선방인지 요사채인지 구분도 없다. 문과 벽을 통한 인위적 경계 역시 관념일 뿐이다.

현대적 양식의 불교건축 흐름이 몇 해 전부터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과격’ 차원이 아

니다. 소위 ‘현대적 사찰건축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들 사찰과 법당은 불교정신보다 편리함을 좇는 콘크리트 구조의 사찰건축물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스스로 인간과 화합하고 선법(禪法)을 선포하며 예경(禮敬)을 받는 건축. 이곳에는 비어있되 일체를 담을 수 있는 선의 경지가 표현돼 있다. 그렇다고 실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쾌적함과 기능성에서도 말 그대로 가히 현대적이다.

지난해 완공된 담양 정토사는 외양만 본다면 대학캠퍼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찰임을 눈치채기 힘들다. 1층 법당에 들어서면 방사형의 문에 빛의 실루엣이 역자처럼 걸린다. 문이 벽이면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스크린이다. 문을 열어 쫓아보면 건축물은 사라지고 자연과 법당은 하나가 된다. 2층 선방은 측면에서 보면 빛산의 그림자와 빛을 동

시에 느낄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그림자와 빛이 이곳 선방에서는 절대 유(有)의 세계로 펼쳐진다.

복도 끝 막돌면 법당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이 일흔 卍역시 월근 콘크리트 구조에 스텔빔(steel beam)으로 외부를 마감한 현대식 양식으로 지어졌다. 더욱 독특한 것은 중앙·모임·종무·전시·집회·참선 등이 모두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각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과 분리의 개념이 복합돼 설계됐다는 점이다. 문에는 문짝이 없어 열고 닫을의 구별이 없게 해 선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고양 문사수범회에 들어서면 법당은 보이지 않는다. 벽돌을 따라가다 만나는 선녀 벽화는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선녀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복도 끝을 막 돌면 나타나는 법당은 복도인지 법당인지 경계가 없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에 법당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법당 한쪽 문을 열어 쫓아보면 그 순간 법당은 사라지고 지극히 평범한 공간만이 남는다. 부처님의 세계와 속세가 한 곳에서 만난다. 50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사용자들은 그 몇 배의 여유를 느낀다. 물론 건축 소재도 단청문양의 종이, 나왕, 합판 등 가장 저렴한 것들이다.

동국대 대각전은 전통을 차용하지 않으면서 전통을 느끼게 하고 있다.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은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을 일깨운다.

스스로를 ‘선 건축가’라고 말하는 김개천씨(44)도 건축 소장은 “시 공을 초월하고 그 초월조차 초월한 침묵이 바로 선의 세계며, 사찰과 법당은 그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건축은 본명 그 시대의 철학과 문화를 담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독창성에서 나온다. 완벽한 건축이 최선의 구조를 갖춘 합리의 극치인 유위법의 기술이라면, 사찰건축은 더 채우지도, 비우지도 않는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위법의 디자인이다. 공간이 부처가 되는 예절과 침묵의 공간. 여기에서 불교와 나는 하나가 된다.

효율적 공간배치 ‘눈길’

무조건 현대식 건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전통 모방으로 과연 오늘날의 불교정신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지는 분명 화두거리다. 현대화는 단순히 외양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불교문화를 표현하고 그것이 미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화가 미래의 전통이 되는 것이다.

불교건축의 진정한 가치는 불교적 가치와 동일할 때 평가받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이룩하지 못한 또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식 사찰(법당)건축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禪건축가 김개천씨

“한국 고건축 본질은 禪”

“부파불교에서 소승, 대승, 선불교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듯이 사찰 건축도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담양 정토사, 고양 문사수범회, 동국대 대각전을 설계한 ‘선 건축가’ 김개천씨(44). 법명 석천 이도건축 소장은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선(禪)을 추구한다.

“한국 고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禪)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이 한국건축의 본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 건축을 하자고 마음먹었죠.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相)이 없는 세계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수묵화, 선화, 선사적법 무(無)마저 초월한 건축이, 김씨가 꿈꾸는 정토다. 선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째. 그는 선을 모든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한 바도, 끝도 없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넘어선 합일(合一)의 건축을 추구한다.

“문화적 힘이 없는 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경전이야 설법이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문화의 창조도 불법을 유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김씨는 창조 못지않게 전통문화의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심사찰은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은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철저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의 선방이 자리잡고 있는 활공루(活功樓- 건물 오른 쪽 끝). 숲모를 최대화에 외형적으로는 투박한 느낌마저 주지만 선방 밑으로 다람쥐가 오고가는 누각의 개념을 살리고, 내부적으로는 출입구에서 선방에 이르기까지 좁고 긴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효과까지 고려했다.



◇고양 문사수범회 법당. 불상과 꽃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아 군더더기가 없다. 법회를 보고 참선을 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법당 문을 열면 바로 세상이 그대로 보이게 설계해 지극한 것과 평범한 것이 통한다는 깨우침을 준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꽃감죽



금강산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고암 스님(1899~1988)이 올린 후포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지자 하루 저녁 재워줄 만한 집을 찾고 있었다. “주인 계시오? 지나가는 객승인데... 하룻밤만 이슬을 피하겠소.”

떨어져나갈 듯한 방문이 열리면서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누구냐고 묻는다. 산발한 여인 옆에는 너댓살 된 아이

가 며칠째 찢지 못한 얼굴로 눈만 반짝이고 있었다.

“스님, 누추하지만 주무실 만하면 주무시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시구려.” 젊은 여자는 퉁퉁 부은 얼굴로, 힘없이 말했다. 방은 사람이 사용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웠다. 무엇보다 허기가 극에 달한 데다 발의 염증과 함께 온몸이 열이 나서 땀이

기침·설사 멎게...구토에도 효과

비 오듯 했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열 방으로부터 돌연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속되는 비명소리는 마치 숨이 막혀 죽는 것 같았다. 부인의 고름스런 신음소리를 듣고도 방문을 열 수 없었다. 점점 비명소리가 커지자 더는 안되겠다 싶어 열어보니, 부인은 아이를 번번하다 역산으로 기절해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배를 당기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생각나 등 뒤에서 산모의 배를 당기니, 아이가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칼을 소독하고 탕죽을 끓였다. 그 후 따뜻한 물로 태

아를 목욕시키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 미역 꼬다리를 찾아 부엌을 다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장독대를 열어보니 보리쌀 한 줌과 하얀 분이 곁에 된 지난 겨울의 꽃감이 있었다. 산모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꽃감죽이 향기롭게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한 수저 들기 시작했다. 고암 스님이 산모에게 먹인 꽃감죽은, 진해나 지혈작용에 도움을 준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곶감 20g, 현미찰쌀 100g

요리법 ① 불린 현미찰쌀을 솥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센 불에서 팔팔 끓인 다음, 약한 불로 서서히 달인다.

② 죽이 거의 되면 곶감을 알갱이 넣어 끓고루 섞은 다음, 다시 한두 차례 더 끓인다.

효능 ① 마른 기침이나, 설사를 멎게 하고, 객혈, 협뇨, 치질로 인한 혈변, 구토 증 등에 좋다.

